



10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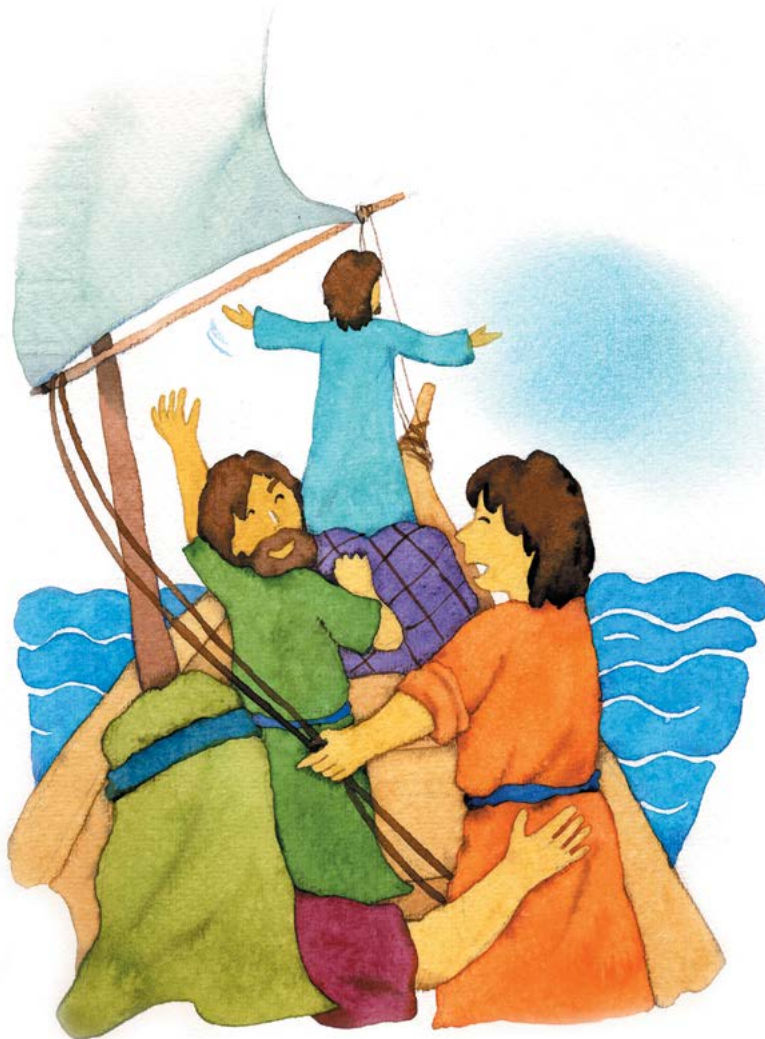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어요.
파도에 휩쓸려 배는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제자들은 겁이 났어요.

“이러다가 모두 죽겠다. 예수님께 도와 달라고 하자!”
예수님께 간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자 바람은 멈추고 바다는 고요해졌어요.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생각하는 아이

남희가 남우의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부러뜨렸어요.
남우가 장난감을 고쳐 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남우는 남희가 미워졌고 다시는 남희랑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우는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화가 났어요.



“엄마, 남희가 내 장난감을 부러뜨렸어요! 혼내주세요!”
“어디 엄마가 한 번 볼까?” “남우야, 엄마가 고쳐 줄게.”
엄마가 이리저리 만지더니 고쳐 주셨어요.
“우와! 감사해요.” 남우는 장난감이 고쳐지자 화가 났던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생각하는 아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고, 아래의 빈 칸을 알맞게 채워 보세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부모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빠, 엄마는
하실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고 아래의 빈 칸을 알맞게 채워
보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빠는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엄마는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빠는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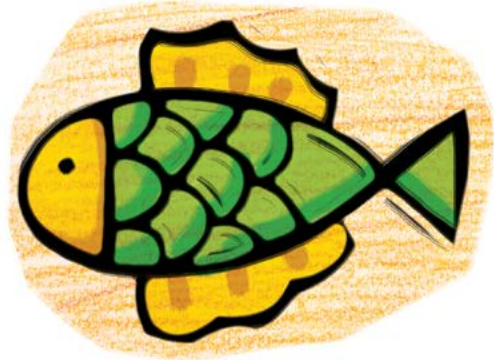
엄마는 하실 수 있어요.

즐거운 활동



글을 읽어 보고 맞는 그림과 선으로 이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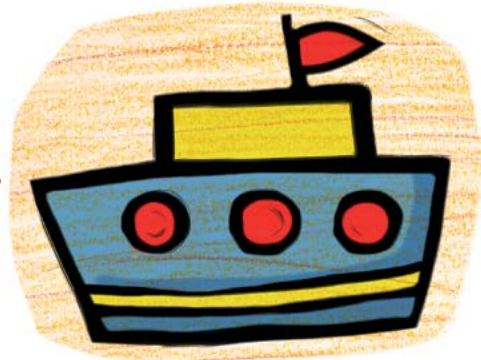
물 위에 떠 있어요.
사람이 탈 수
있어요.



거품을 일으켜요.
철썽철썽 소리도
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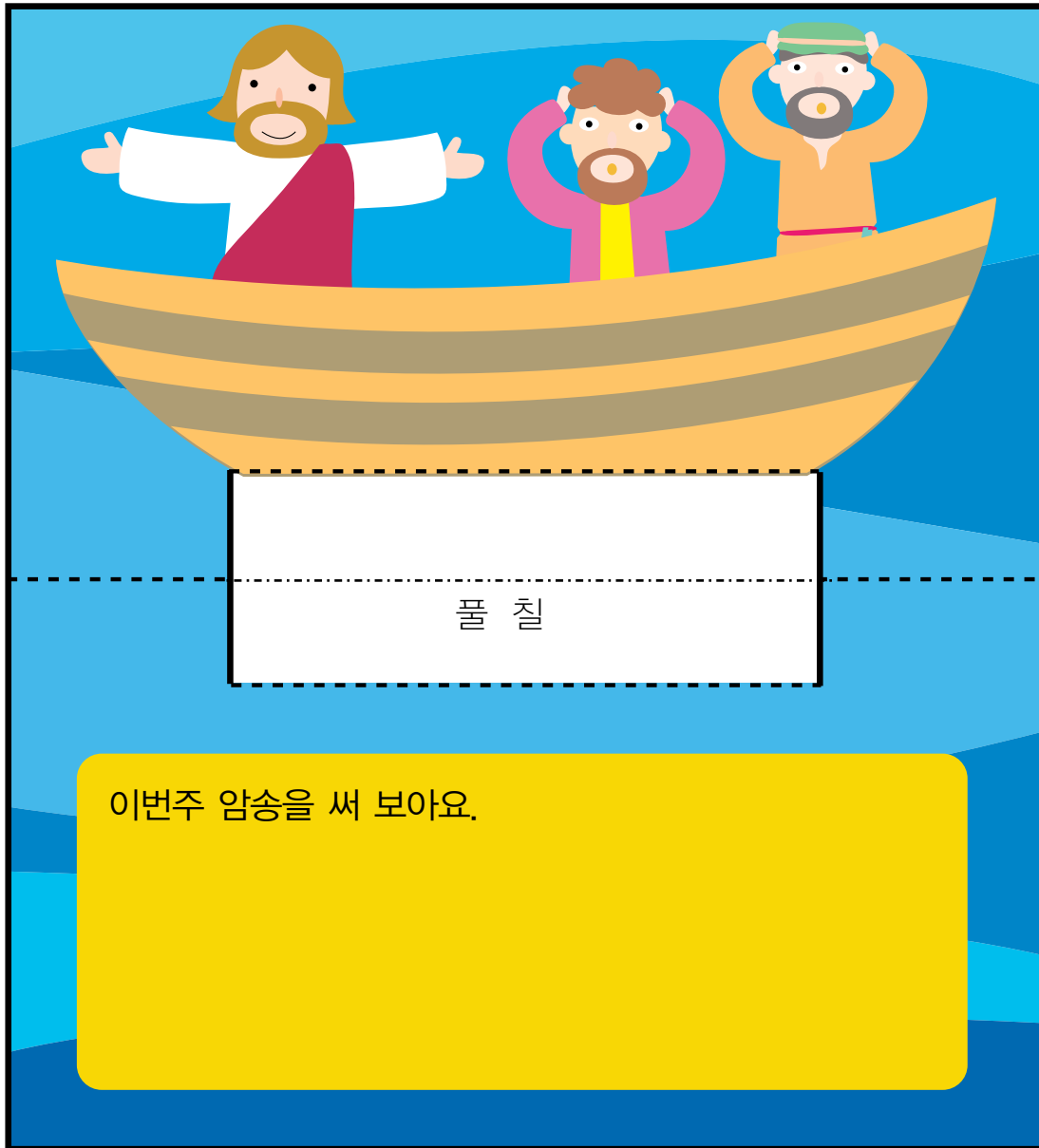
물속에서 헤엄쳐요.
갑옷을 입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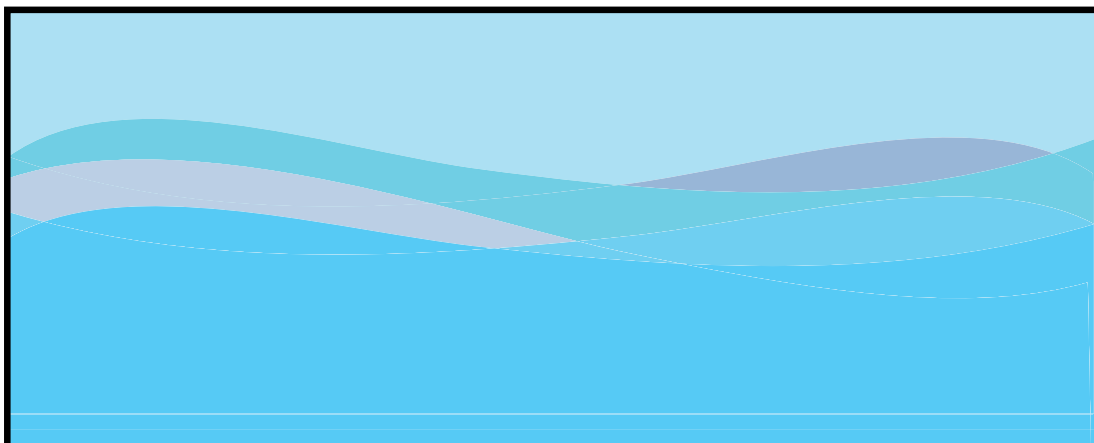
거친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 만드는 방법은 10쪽에 있습니다.

재밌는 만들기



↓ 아래 잔잔해진 바다를 오려서 카드의 풀칠하는 곳에 붙이세요.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마가복음 4장 41절

다시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생님께

부모님께